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s of Relative Benefits and Costs of Piracy of Digital Conten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박경자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Kyung-Ja Park(parkkj@jn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복제와 비교한 불법복제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행동예측이론 기반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용-편익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법복제에 비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관한 결과로,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행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불법복제의 상대적 손실요인 중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복제행동은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태도가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중심어 : | 디지털콘텐츠 | 불법복제 | 금전적 효용 | 심리적 효용 | 법적 비용 | 기술적 비용 | 도덕적 비용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iracy of online digital contents, focusing on relative awareness of illegal duplications, compared to legal duplication. To do this, the current study integrates factors proposed in existing literature and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accesses them from cost-benefit point of view.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with regard to relative benefits gained by illegal duplication, it is shown that monetary and psychological uti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Particularly, it is found that monetary incentive is the main cause of illegal duplication as monetary gains are major factors affecting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Second, it is suggested that ethical cost is a definitive factor that has negative effects on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while technological cost has also significant effects on illegal duplication behaviors.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s of illegal duplication. This result shows that an attitude to illegal duplication is antecedent of behaviors as the belief and the value regarding illegal duplication can lead actual behaviors.

■ keyword : | Digital Contents | Piracy | Monetary Benefit | Psychological Benefit | Legal Cost | Technological Cost | Ethical Cost |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926)

접수일자 : 2015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5월 31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박경자, e-mail : parkkj@jnu.ac.kr

I. 서론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내용물을 디지털화한 것으로[14],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유통시키며 공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원저작자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변형시켜 유포하는 등 불법복제(Piracy)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됨과 동시에 인터넷에 유포될 정도로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자로부터 명백한 허가를 받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불법복제행위에 해당된다[11]. 특히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는 물리적 변형가능성이 적어 형태와 품질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디지털콘텐츠 그 자체의 특성상 복제와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불법복제라는 복병이 공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정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불법복제의 원인과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 범죄심리학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불법복제를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윤리문제로 보고 도덕적, 의무론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해석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합리적 행동이론(TRA)이나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도 상당수 이루어졌다[1-3]. 이외에 Triandis[5]의 행동이론(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을 중심으로 불법복제행동을 해석하려는 시도[6][7],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토대로 상황적 변수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었다[8][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복제에 관한 그동안의 연

구들은 행동예측기반의 다양한 이론을 토대로 불법복제행동을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 이론 중심의 적용은 연구자에 따라 상충된 결과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Shim and Taylor[10]는 개인들이 불법복제행동을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으며, 김중환[6], 박현정·김상훈[8]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따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행동이론기반의 연구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의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론을 접목시키는 노력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8].

또한 불법복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소프트웨어 분야[1][3][6][7][9][10][13][14][20][25]를 중심으로, 영화 및 영상[8][11][16], 음악[12][19] 등 특정 유형의 장르를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장르간의 기술적 접근차이나 이용환경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가령,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장량의 낮은 품질로 인식되던 인터넷상의 영상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소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컨버전스 환경에 맞게 융·복합된 콘텐츠가 선보이고 있어 콘텐츠 장르간의 구별이나 차이는 더욱 미비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행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도들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장르나 특정 이론 중심이 아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행동을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이론적 관점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불법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와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불법복제에 관한 선행연구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불법복제가 왜 발생하는지,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 그 동기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 법적인 관점, 기술적 관점 등 여러 행동이론을 적용하거나 추가변인을 검증함으로써 불법복제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윤리적 의사결정기반 연구들에서는 불법복제행동을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대표적인 윤리문제로 보고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관련연구로, 김광용[1]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있어서 조직의 윤리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으며, Holm[22]은 불법복제에 대한 죄책감이 많을수록 윤리적인 비용을 크게 느껴 불법행위가 억제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Higgins et al.[11], Gopal et al.[12], Siponen and Vartiainen[13] 등 윤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지가 강할수록 디지털콘텐츠 불법이용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행동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은 불법복제라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인 단속과 처벌의 영향력을 제안하고 있다. Harrington[9]은 단속 위험과 처벌강도의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복제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iang and Assane[14]는 처벌 등 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임을 실증하였다.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불법복제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불법복제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컴퓨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1][20]. 만약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20].

한편,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에서 그 원

인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즉, 불법복제가 갖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ennig-Thurau et al.[24]는 불법복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금전적인 효용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심리적인 만족감때문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콘텐츠의 최신성[2], 이동성 및 저장성[8][24] 등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이종 서비스 및 기기 간의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어 이동성이나 저장성의 가치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2. 불법복제의 비용과 편익

앞서 기술한 불법복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윤리적 측면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클수록[1][5][12][13][22], 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6][11][19][20], 범죄예방 및 법적인 측면에서는 단속과 처벌 등 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3][9][14][18] 불법복제에 대해 부정적이며 행동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이나 [3][7][17][24], 지불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한다는 심리적인 쾌감이[8][24] 불법복제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는 곧 불법복제가 합법에 비해 상대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과 합법에 달리 상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Becker는 편익-비용관점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15]. 예를 들어 범죄는 수지맞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를 통해 얻는 편익이 범죄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높은 검거율과 기소율, 그리고 엄격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결혼, 교육, 범죄 등에 적용되어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특정 선택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을 설

명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법이 아닌 불법복제를 선택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Becker[15]의 편익-비용이론을 토대로, 그동안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주요요인들을 편익과 비용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해당된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도덕적 비용은 합법에 비해 우려되는 상대적 비용요인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가설

불법복제 사용자의 의식수준조사에 관한 이해경·김희원[16]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을 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43%가 답하였다. 이는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복제를 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측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견해로 오현숙 외[17]는 정품가격에 비해 불법복제비용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다고 하였다. Peace et al.[3], Limayem et al.[7]의 연구에서도 구매비용절약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익이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이 불법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ennig-Thurau et al.[24]의 연구에서도 불법복제의 고유 효용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강조한 바 있으며, 불법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복제의 금전적 이익은 불법복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불법복제행동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불법복제의 금전적인 효용은 불법복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불법복제의 금전적인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것은 금전

적인 가치와 별개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다. 즉, 공짜로 획득했다는 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지각을 넘어, 지불해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쾌감 및 심리적 가치를 의미한다[8][24].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효용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법복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복제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3, 불법복제의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불법복제의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법적인 복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법적인 단속이나 처벌 등과 같은 위험 발생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hiang and Assane[14]는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있어서 법적 비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Peace et al.[3]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처벌의 엄격성 및 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제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Silver[18]의 연구에서도 단속이나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이 불법복제를 억제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위협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법복제에 대해 비호의적이며 복제행동을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5, 불법복제의 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불법복제의 법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법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 제한을 피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Rochelandet and Le Guel[19]는 원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나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는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견해로 Wagner and Sanders[20]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악성코

드 문제, 컴퓨터 오작동, 보안 및 과일문제 등 불법복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법복제에 대한 기술적 위험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7, 불법복제의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불법복제의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윤리의식과 관련 있는 도덕적 책임은 특정행위에 대한 당위적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써, 특정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의 예측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5]. 관련 연구로 Gopal et al.[12]는 불법과일복제는 저작권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Siponen and Vartiainen[13]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지가 강할수록 디지털콘텐츠를 정당한 대가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Higgins et al.[11], Holm[22]의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에 대한 죄의식이 강할수록 불법복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복제에 대한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가설 9, 불법복제의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불법복제의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태도는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8]. 여기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과 평가로써,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특성이다[27]. 이와 관련하여 Ajzen[27], Ajzen and Fishbein[28], Petty and Cacioppo[23] 등과 같은 현저한 행동이론의 제안자들은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행동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의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7], 태도와 행동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11, 불법복제태도는 불법복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 설계 및 실증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본 설문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선된 항목으로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본 설문은 2014년 12월 1일~12월 6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소재 6개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의 일부를 양해 받아 진행되었다. 표본 집단을 대학(원)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사용이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직장인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반면 학습이나 여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설문에는 총 28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6부를 제외한 256부를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1세부터 25세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터넷 사용량은 1일 기준, 1시간이상 3시간미만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복제하는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음

답자 중 약 61%가 영상콘텐츠(영화/방송물 등), 약 31%가 음성콘텐츠(음악, 벨소리 등)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경로는 P2P사이트(4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블로그/홈페이지/커뮤니티(31.1%), 스마트폰 어플(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검정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표준화적재값이 모두 0.5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모두 0.5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의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9]. 또한 다중상관관계지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가 0.721~0.959으로 나타나 도입된 관찰변수들이 개념설명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와 AVE의 제공근 값을 비교한 결과, [표 3]와 같이 AVE의 제공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26].

3. 구조모형 검정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 얻어지는 경로계수를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chi^2 = 214.479(df = 168)$, χ^2 .

/df = 1.277으로서 3.0보다 작으며, SRMR=0.030로 기준치인 0.05이하이며, GFI = 0.929, AGFI = 0.903, NFI = 0.964, NNFI= 0.964, IFI=0.992, TLI=0.990, CFI=0.992, RMSEA=0.033으로 일반적인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태도($\beta=0.216$, $p<0.05$)와 행동($\beta=0.353$,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과 가설2가 지지되었다. 가설3과 가설4,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beta=0.252$, $p<0.001$)와 행동($\beta=0.27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법적 비용과 불법복제태도($\beta=0.049$, $p=0.0448$) 및 행동($\beta=-0.072$, $p=0.218$)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가설7, 기술적 비용과 불법복제태도($\beta=-0.054$, $p=0.326$)간의 관계는 기각되었으며, 가설8, 기술적 비용과 불법복제행동($\beta=-0.174$, $p<0.001$)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9,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beta=-0.516$, $p<0.001$)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제행동($\beta=-0.060$, $p=0.364$)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11, 불법복제태도와 행동($\beta=0.281$, $p<0.001$)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불법복제태도는 46.3%, 불법복제행동은 58.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경로도해는 [그림 1], 가설검정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결론부분에 기술하였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출처
금전적 효용	금전적으로 이익이라는 지각의 강도	불법복제가 금전적 이익, 더 경제적,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	[7][24]
심리적 효용	무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만족, 쾌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쾌감, 성취감, 기분 좋음	[8][24]
법적 비용	단속, 처벌 등 법적 위험에 대한 지각	단속에 걸릴 확률, 벌금 등 처벌 위험, 법적 불이익우려	[3][25]
기술적 비용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한 위험 지각	기술적 통제필요, 감염 악성코드 문제, 기술적인 위험지각	[19][20]
도덕적 비용	양심적 가책, 죄책감 지각의 정도	원작자에게 미안한 일, 저작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양심의 가책을 느낌	[13][22]
불법복제태도	불법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 및 판단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관찮음,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관찮음	[27][28]
불법복제행동	불법행동(업로드/다운로드/공유)정도과 지속적인 불법사용에 대한 의지	불법다운로드/업로드, 주변인과의 불법 공유, 향후지속의도	[5][27]

표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SMC	CR	AVE
금전적 효용	금전1	1	0.887	-	-	0.788	0.896	0.741
	금전2	1.050	0.902	0.047	22.134	0.813		
	금전3	1.119	0.979	0.042	26.406	0.959		
심리적 효용	심리1	1	0.914	-	-	0.835	0.884	0.717
	심리2	1.011	0.898	0.043	23.324	0.807		
	심리3	1.093	0.962	0.039	27.734	0.925		
법적 비용	법적1	1	0.906	-	-	0.821	0.866	0.683
	법적2	1.072	0.963	0.042	25.383	0.927		
	법적3	0.950	0.849	0.048	19.786	0.721		
기술적 비용	기술1	1	0.929	-	-	0.864	0.931	0.817
	기술2	1.019	0.975	0.031	32.985	0.951		
	기술3	0.999	0.943	0.034	29.364	0.890		
도덕적 비용	도덕1	1	0.911	-	-	0.830	0.873	0.696
	도덕2	1.066	0.953	0.041	26.162	0.909		
	도덕3	0.965	0.887	0.044	22.144	0.787		
불법복제 태도	태도1	1	0.927	-	-	0.859	0.860	0.672
	태도2	0.986	0.904	0.042	23.695	0.817		
	태도3	1.034	0.911	0.043	24.155	0.83		
불법복제 행동	행동1	1	0.924	-	-	0.853	0.901	0.751
	행동2	1.087	0.950	0.038	28.398	0.902		
	행동3	1.085	0.931	0.040	26.790	0.868		

표 3.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AVE	(A)	(B)	(C)	(D)	(E)	(F)	(G)
(A)금전적 효용	5.222	1.352	0.741	0.861						
(B)심리적 효용	4.927	1.458	0.717	0.43	0.847					
(C)법적 비용	4.381	1.379	0.683	0.272	0.309	0.826				
(D)기술적 비용	4.158	1.379	0.817	0.157	0.230	0.430	0.904			
(E)도덕적 비용	4.217	1.449	0.696	0.082	-0.096	-0.124	-0.202	0.834		
(F)불법복제태도	4.109	1.484	0.672	0.185	0.223	0.414	0.522	-0.355	0.820	
(G)불법복제행동	4.811	1.457	0.751	0.164	0.098	0.260	0.392	-0.278	0.686	0.867

주)오른쪽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 대각선 아래는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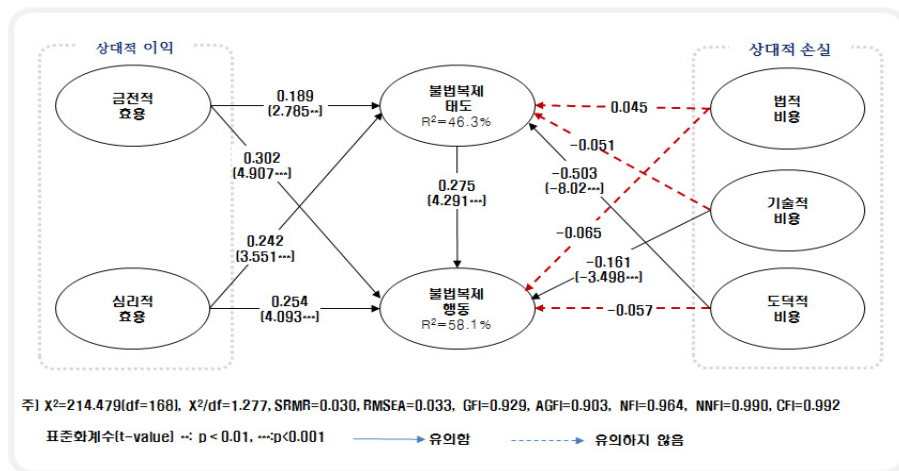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도해(Path Diagram)

표 4. 가설검정결과

가 설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t값	결과
H1	금전적 효용	→ 불법복제태도	+	0.189	0.216	2.785**	채택
H2	금전적 효용	→ 불법복제행동	+	0.302	0.353	4.907***	채택
H3	심리적 효용	→ 불법복제태도	+	0.242	0.252	3.551***	채택
H4	심리적 효용	→ 불법복제행동	+	0.254	0.271	4.093***	채택
H5	법적 비용	→ 불법복제태도	-	0.045	0.049	0.759	기각
H6	법적 비용	→ 불법복제행동	-	-0.065	-0.072	-1.232	기각
H7	기술적 비용	→ 불법복제태도	-	-0.051	-0.054	-0.981	기각
H8	기술적 비용	→ 불법복제행동	-	-0.161	-0.174	-3.498***	채택
H9	도덕적 비용	→ 불법복제태도	-	-0.503	-0.516	-8.02***	채택
H10	도덕적 비용	→ 불법복제행동	-	-0.057	-0.06	-0.908	기각
H11	불법복제태도	→ 불법복제행동	+	0.275	0.281	4.291***	채택

주) **: p<0.01 ***: p(0.001)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불법복제의 상대적 이익요인과 손실요인이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복제의 상대적 이익으로 구성된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이 클수록 불법복제에 대해 호의적이며 복제행동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행하는 주된 이유가 금전적인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대적 손실요인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법적 비용과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Peace et al.[3], Higgins et al.[11], Chiang and Assane[14], Lin and Liu[25] 등 많은 연구들에서는 단속이나 처벌과 같은 법적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술한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불법복제에 있어서 법적 비용의 영향력이 유효하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결과를 비롯한 최근의 김중환[6], 오현숙 외[17]의 국내 연구에서는 법적 비용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복제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우려됨에도 불

구하고, 실제 단속이나 처벌의 실효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또한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불법복제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보안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실제 행동 시 강하게 부각되는 요소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법복제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복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불법복제행동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불법복제행동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김중환[6], 박현정·김상훈[8], Shim and Taylor[10] 등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불법복제태도와 불법복제행동은 밀접한 관계로 확인되었다. 즉,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실제 행동(업로드/다운로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1].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불법복제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들이 불법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합법복제

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았던 경향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합법복제와의 비교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불법복제행동을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관점의 주요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상대적 이익과 손실개념으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의 이론적 확장과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불법복제행동의도가 아닌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좀 더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불법복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효용의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불법복제를 통해 얻는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 쾌감의 강도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복제를 통해 잃을 수 있는 손실요인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억제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설계할 수 있다. 가령, 불법복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호소하는 것이 가장 설득적이며, 불법복제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장치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에 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보다 가시화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향후 연구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문응답의 익명성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주제의 특성상 일부 응답자들은 질문에 솔직하지 않게 대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불법복제에 대한 이익과 손실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향관계는 사회적,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용한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표본추출을 통해 비교논의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김광용,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1권, 제4호, pp.48-86, 2004.
- [2]곽원일, 최원일,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pp.47-62, 2008.
- [3] A. G. Peace, D. F. Galletta, and J. Y. L. Thong, “Software Piracy in the Work place : A Model and Empirical Test,” J.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0, No.1, pp.153-177, 2003.
- [4] T. P. Cronan and S. Al-Rafe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irate Software and Media,” J. of Business Ethics, Vol.78, No.4, pp.527-545, 2008.
- [5] H. C. Triandis,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0.
- [6] 김중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제12권, 제2호, pp.131-152, 2013.
- [7] M. Limayem, M. Khalifa, and W. Chin, “Factors Motivating Software Piracy : A Longitudinal Study,”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51, No.4, pp.414-425, 2004.
- [8] 박현정, 김상훈, “영화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4권, 제4호, pp.1-20, 2011.
- [9] S. J. Harrington, “The Effect of Codes of Ethics and Personal Denial of Responsibility on Computer Abuse Judgements and Intentions,” MIS Quarterly, September, pp.257-278, 1996.
- [10] J. P. Shim and G. S. Taylor, “Practising Managers’ Perceptions/Attitudes towards Illegal Software Copying,” OR/MS Today, Vol.16, No.4, pp.30-33, 1989.

- [11] G. E. Higgins, B. D. Fell, and A. L. Wilson, "Digital piracy: Assessing the contributions of an integrated self-control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riminal Justice Studies: A Critical Journal of Crime, Law, & Society*, Vol.19, pp.3-22, 2007.
- [12] R. D. Gopal, G. L. Sanders, S. B. Bhattacharjee, M. Agrawal, and S. C. Wagner, "A Behavioral Model of Digital Music Piracy," *J.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Vol.14, No.2, pp.89-105, 2004.
- [13] M. T. Siponen and T. Vartiainen, "Attitudes to and factors affecting unauthorized copying of computer software in Finland,"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24, No.4, pp.249-257, 2005.
- [14] E. Chiang and D. Assane,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Among College Students," *Applied Economics*, Vol.32, No.2, pp.157-166, 2002.
- [15] G. S. Becker,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Life, Nobel Lectures, Economics*, 1992.
- [16] 이혜경, 김희완,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212-224, 2009.
- [17] 오현숙, 박남기, 강내원,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규범이 불법 다운로드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3권, 제4호, pp.343-378, 2013.
- [18] E. Silver, *Deterrence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Pennsylvania State, 2002.
- [19] F. Rochelandet and F. Le Guel, "P2P Music Sharing Networks: Why the Legal Fight Against Copiers May Be Inefficient," *Review 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Vol.2, No.2, pp.69-82, 2005.
- [20] S. C. Wagner and G. L. Sanders, "Considerations i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software piracy," *J. of Business Ethics*, Vol.29, No.1, pp.161-170, 2001.
- [21] T. D. Beisecker and D. W. Parson, *The process of social influence. Readings in persuas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2.
- [22] H. J. Holm "Can Economic Theory Explain Piracy Behavior?," *Topic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3, No.1, pp.1-15, 2003.
- [23] R. E. Petty and J. T. Cacioppo,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Vol.19, pp.123-205, 1986.
- [24] T. Hennig-Thurau, V. Henning, and H. Sattler, "Consumer File Sharing of Motion Pictures," *J. of Marketing*, Vol.71, No.4, pp.1-18, 2007.
- [25] H-N. Lin and Y. P. Liu, "Predicting the Use of pirated software: A contingency model integrating perceived risk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of Business Ethics*, Vol.91, No.2, pp.237-252, 2010.
- [26] C. Fornell and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 [27]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 [28] I. Ajzen and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 [29] J. F. Hair, W.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6.

저 자 소 개

박 경 자(Kyung-Ja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전자상거래전공(경영학박사)
- 2009년 3월 ~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e-Business, 정보시스템관리, 온라인소비자행동, 디지털콘텐츠관리